

일본식과 서양식이 융합된 교회당

초기의 교회당은 유럽인 선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일본 목공들이 지은 간소한 건물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인 목공들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기술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일본과 서양의 기술과 재료를 조합한 소박하면서도 훌륭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당의 외관은 유럽의 양식과 디자인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내부는 일본 전통 민가 건축의 특색을 살려 일본의 관습에 맞게끔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이나 다다미에 앉아서 기도를 올렸다.

잠복 기리시탄의 대부분이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한편, 잠복기에 계승해왔던 독자적인 신앙 의례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금도 나가사키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표

1854 미일친화조약 체결. 무역을 위해 개국을 약속함

1858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1865 오우라 천주당 헌당

1865 신자 발견

1867 우라카미 요반쿠즈레

1873 메이지 정부가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철폐